

# 닭고기 수입 증가, 결국 농가 터전 앓아간다



**닭**고기 수입이 금년들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이후 국내 닭고기 시장이 성장모드에 들어서는 과정에서 닭고기 수입증가는 국내 닭고기 시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닭고기 시장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닭고기 수입량이 증가한데는 크게 두가지 요인을 꼽을 수 있다. 예년에 비해 국내 닭고기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다는 점과 금년 1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12만톤에 달하는 할당관세 적용이다. 또한 금년 초 최대 닭고기 수출국인 브라질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수출입에 차질을 가져오기도 하였으나 국내 수입량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 금년 닭고기 수입 증가 추세

최근 10년간 평균 닭고기 수입량은 매월 평균 12,000톤 정도로 수입되던 것이 코로나 이후 지난해에 19,000톤으로 높아진데 이어 금년에는 22,000톤으로 지난해에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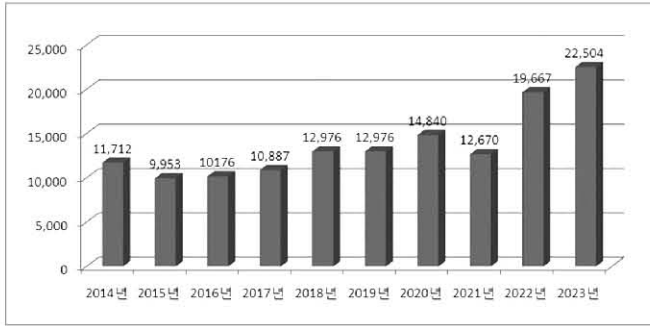
해 13.6%나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도표1). 닭고기 수입이 증가한다는 것은 자급율이 감소한다는 의미이며, 그만큼 국내 생산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애기다. 닭고기 생산량 대비 수입량의 비율로 살펴본 자급율은 10년전 83%이던 것이 지난해 77%로 줄어들었고 금년 이대로 수입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73.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8월 닭고기(열처리 포함) 수입국을 보면 브라질(17,127톤), 태국(6,173톤), 중국(557톤), 미국(185톤), 덴마크(139톤), 스웨덴(109톤) 순으로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 가격상승과 무관세 수입이 원인

닭고기 8월까지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평균 2,038원에서 2,413원으로 18.4%나 뛰어올랐다. 이같은 원인은 아무래도 금년 병아리 부족사태로 수급 불균형이 이루어진데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금년

## 초점 닭고기 수입 증가



〈도표1〉 10년간 닭고기 수입추이(월평균)

초 전국적으로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인해 닭과 종란이 살처분 되면서 예년 공급량을 밀돌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공물 가격 인상과 환율상승 등으로 농장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사육규모가 위축되었다. 또한 여름 폭우와 흑산으로 닭이 집단 폐사되면서 공급량이 수요를 맞추지 못하는데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정부는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정책으로 금년 초부터 무관세 닭고기 수입은 물론 종란수입까지 추진하면서 높아진 닭고기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실제로 가격을 낮추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수입된 닭고기는 비축물량으로 시중에 곧바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용처도 빼없는 순살과 냉동제품은 대부분 외식업체나 가공식품 제조에 활용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구입하는 국산 냉장닭고기와 유통경로가 달라 수입업체들만 유리하게 한계 한 풀이 되어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 밖에 수입이 증가하는데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보면 금년 병아리 부족사태로 육계 도축량이 줄어든 데도 영향을 찾을 수 있다. 도축량을 보면 8월까지 전년대비 2.3%가 감소한 84,852천수(2022년 86,891천수)로 나타났다.

## 닭고기 수입 최소화해 힘써야

국내 닭고기 시장은 이미 치킨게임에 도달해 과잉생산체계를 갖춘지 오래다. 국내 닭고기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대규모 계열사들은 자체 원종계를 확보, 종계를 공급하면서 일반 종계장으로부터의 구매가 줄어들면서 종계업계의 구조도 재편되고 있다.

금년의 경우 자체적인 생산부족과 가격 상승 외에 정부의 무관세 수입이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수입량 확대를 부추겼다. 원인을 분석하고 대처할 경우 우리는 육계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산업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수입 증가는 곧 자급을 감소로 이어져 육계산업 축소를 의미한다. 국내 육계산업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적, 업계적인 노력이 따라야 할 것이다.

취재 | 김동진 편집장 djkim300@hanmail.net